



아시아리뷰

제16권 제1호(통권 36호), 2026

서평



## 제국의 노스탤지어

장문석 지음,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  
(틈새의시간, 2025)를 읽고

홍종욱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대학의 토론 문화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sup>1</sup> 필자 역시 대학 신입생 때 학회 세미나에서 『광장』을 읽었다. 발간된 지 이미 30년이 지난 때였지만 『광장』은 여전히 대학생의 필독서였다. 다만 우리는 조금했고 광장이란 말에서는 인파로 가득 찬 시청 앞이나 깃발로 뒤덮인 도서관 앞마당을 떠올리는 게 고작이었다. 대학원 시절 『화두』도 읽었지만, 뭔가 후일담 소설 비슷한 느낌만 남아 있다.

『광장』도 『화두』도 어찌 읽어야 할지를 모르고 덮어 둔 사이, 여러 문학 및 역사 연구자의 분투에 힘입어 20세기 한국사를 꿰뚫는 냉전과 식민주의라는 가닥이 잡혔다. 비로소 최인훈을 한국 현대사와 지적 긴장을 늦추지 않은 탈냉전과 탈식민의 길잡이로 읽어 낼 토대가 마련되었다. 『최인훈의 아시아』는 이러한 연구 축적을 치열하게 흡수한 위에 새로이 아시아라는 참조 축을 설정함으로써 최인훈과 그 시대를 읽어 내는 놀라운 독법을 제시했다.

『최인훈의 아시아』에 대해서는 훌륭한 서평이 이미 여럿 나와 있으므로<sup>2</sup> 이

<sup>1</sup> 장문석, 2025,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 틈새의 시간, 160쪽. 이하 이 책의 인용은 본문 괄호 속에 쪽수만 표시.

<sup>2</sup> 선민서, 2025, ““주변부의 세계사”라는 최인훈의 문화적 상상과 아시아(들)의 가능성: 장문석의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2025)에 대한 서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3); 반재영, 2025, “연결과 만남의 관점에서 읽은 최인훈: 장문석 저 『최인훈의 아시아』(틈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따로 보태지 않겠다. 아래에서는 『최인훈의 아시아』의 구성상 특징을 간단히 살핀 후,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룬 몇몇 주제에 대해 필자 나름의 생각을 부연함으로써 저자의 서사를 보완하고자 한다.

## I. 왜 아시아인가?

제1장 최인훈, 아시아를 질문하다

제2장 아시아의 공간: 냉전을 넘어선 평화의 상상력

1. 동아시아의 광장, 증립을 쓰다: 『광장』(1960~61)
2. 한국의 지식인, 통일을 말하다: 「크리스마스 캐럴」(1964~66)과 『서유기』(1966~1971)
3. 지역의 민중, 민주주의와 평화를 꿈꾸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1~72)

제3장 아시아의 시간: 비서구 근대의 경험을 통한 보편성의 재인식

1.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 『회색인』(1963~64)
2.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새롭게 만든 ‘전통’: 『총독의 소리』(1967~68)
3. 망각된 한국 민중의 꿈으로 다시 쓴 인류의 이상: 『화두』(1994)

제4장 아시아의 원리: 연대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사의 원리

1. 근대사를 다시 생각하다: 『주석의 소리』(1969~1971)
2. 식민지를 다시 생각하다: 『두만강』(1970)
3. 세계사를 다시 생각하다: 『태풍』(1973)

제5장 최인훈, 아시아를 생각하다/살다

이 책의 목차다. 아시아를 질문하는 서장과 생각하며 살아낸 아시아를 정리한 종장 사이 본문 세 장은 각각 공간, 시간, 원리로서 아시아를 그렸다. ‘아시아의 공간’(제2장)은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아시아다. ‘아시아의 시간’(제3장)은 비동

세의 시간, 2025)에 부치는 서평”, 『상허학보』 75; 김도민, 2025, “‘역사화’의 방법으로 다시 읽는 최인훈: [서평] 장문석(2025),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 틈새의시간, 448쪽”, 『인문논총』 82-3; 유찬근, 2025, “유찬근의 역사책 달리기: 밀천 없는 근대에서 아시아의 연대와 공존을 찾다, 식민지 지적 전통 앞에서 괴로워한 최인훈의 제3의 길”, 『한겨레 21』 1562.

시성 및 후진성의 표상인 아시아를 다뤘다. ‘아시아의 원리’(제4장)는 세계 인식의 원리로서의 아시아다. 저자는 유럽적 원리와 대별되는 아시아적 원리의 가능성을 제안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를 원용한다(40쪽).

20세기 한국을 꿰뚫는 키워드는 식민주의와 냉전이라고 말해진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무엇인가. 냉전의 최전선으로 몰린 후식민지 한국에서 많은 지식인이 탈식민과 탈냉전을 꿈꿨다. 목표는 독립과 중립이었고 누구보다 이 가치를 옹호한 이는 바로 최인훈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는 여러 국가 사이에 똑바로 서기보다 민중의 생활세계에 주저앉기를 택했다. 최인훈의 탈식민, 탈냉전은 독립과 중립의 선명함 대신 아시아라는 모호함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최인훈의 아시아』인 이유다.

본문의 배열은 공간, 시간, 원리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었지만, 각 장에서 분석하는 작품이 발표된 순서 또한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이를 드러내고자 책의 목차에는 없던 각 작품의 발표 연도를 위 목차에 덧붙였다. 『광장』에서 시작하여 『회색인』을 거쳐 『태풍』으로 나아가는 식이다. 공간, 시간, 원리는 하나의 이념이 성숙해 가는 일반적인 궤적일지 모른다. 전전 일본의 아시아주의 역시 이웃이라는 구체적인 지리 감각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인 역사 혹은 발전의 감각을 거쳐 하나의 원리이자 이념으로 나아갔다. 이 책의 구성은 최인훈 스스로 즐겼던 말을 빌리면(147쪽), 사상가 최인훈이라는 개체 발생이 아시아주의 형성이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그린 셈이다.

## II. 국가를 넘어서는 사회와 제국

20세기 한반도는 국가와 국가주의의 과잉이었다. 최인훈이 겪은 순서대로 보자면 제국주의 일본, 공산주의 북한, 그리고 반공과 반일 독재 남한이 있었다. 유럽이 광역권 단위로 냉전을 겪은 것과 달리 동아시아는 개별 국가 단위로 냉전체제에 포섭되었다는 저자의 설명도(42쪽)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판단된다.

개별 국가로 나뉜 상황은 주체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러한 고립은 냉전 탓만

은 아니었다. 같은 ‘자유 진영’인 일본과도 탈식민, 탈제국의 진통이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밀항자가 오무라 수용소에 갇혔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라인을 넘은 일본 어부 1,000명 이상이 억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장』(1960)은 중립과 개방을 지향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김삼규가 귀국하여 중립화 통일론을 제안했고, 잡지 『새벽』 편집자 신동문은 『광장』을 훑타 요시에(堀田善衛)의 『광장의 고독』(1951)과 겹쳐 읽었다. 4·19 혁명으로 열린 광장은 ‘아세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74쪽) 있던 이승만 정권의 반공, 반일 정책이 초래한 고립에 대한 거부였다.

『회색인』(1963)에서는 식민지를 발견했다. 최인훈은 1960년 ‘나는 냉전 하에 살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1963년에는 ‘나는 냉전 하에 살고 있는 식민지인이다’라는 방향으로 문제의식을 심화했다(173쪽). 『총독의 소리』(1967)와 『주석의 소리』(1969)는 탁월한 탈식민 서사다. 총독과 주석이라는 식민지 주체의 목소리를 통하여 후식민지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탈식민의 귀착점이 또 하나의 국가주의라는 현실은 국가의 과잉에 허덕이는 후식민지 지식인에게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서 최인훈은 주석의 목소리를 빌려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형성’을 ‘요청’한다(279쪽). 주석은 식민지 경험이 ‘공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켜 한국에서는 사회를 형성할 계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회의 구성원리를 분업과 연대로 이해했다(278쪽).

『두만강』(1970)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1)은 국가를 넘어서는 사회의 발견, 곧 생활세계의 회복이라는 탈식민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보씨는 한국에서 공공영역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를 탐색하면서 민중의 일상에 대한 존중과 친밀권에 근거한 지역에서의 대안적 공공권을 구축한다(121쪽). 『두만강』은 식민을 이주로서 이해하고 피식민자 한국인과 식민자 일본인이 갈등 속에서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H읍을 형상화했다.

최인훈은 피침략자가 침략자의 언어로 조석 인사말을 하게 되는 때를 가장 비극적인 시기라고 보았다(295쪽).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자 김명식은 일본의 한국 통치를 ‘비식민지화’로 파악하고, 그 진전에 따라 “대립자와 대립의 사실까지도 몰각”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홍종욱, 2019: 315). 야

나이하라 다다오는 식민을 ‘사회군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299쪽). 1940년대 근대 초극론을 전개한 역사학자 스즈키 나리다카(鈴木成高)는 국가의 시대는 지났고 주권의 기반인 민족의 생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大橋良介, 2001: 216).

『주석의 소리』에서 주석은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국의 원리에 주목했다(268쪽). 제국은 단순히 국가의 팽창이 아니라 국경을 넘쳐흐르는 사회일지 모른다. 한나 아렌트는 제국은 다수의 민족 및 국가를 통합하는 원리를 갖추었으나 국민국가에는 그 원리가 부재한다고 보았다(265쪽).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의 전후 체제를 ‘도쿠가와와 평화’라고 이해했다(86쪽). 전후 일본의 탈제국화를 도쿠가와 시대의 쇠국과 연결 지은 것이다.

최인훈이 4·19에 겹쳐 보았던 해방공간은 정치적 참여의 시기일 뿐 아니라, 냉전의 형성 이전 많은 지식인과 민중이 동아시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며 소통 가능성을 모색했던 시기였다(85쪽). 자신의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동아시아 냉전의 제한을 넘어 국가의 외부를 상상하는 최인훈에게서는 제국의 노스텔지어가 느껴진다.

### III. 중국이라는 문턱 앞에서 아시아로 우회

식민지를 가지지 못한 한국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34쪽). 『회색인』의 독고준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정지하고자 주저앉는 길을 제시한다. 가지무라 히데키는 한국을 ‘세계의 하수구’에 비유하면서 그와 같은 ‘세계사적 사명’을 회피하지 말 것을 주장한 함석헌의 사상에서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바깥 문명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독립 문명으로 향하는 몽상에도 젓지 않으면서, 주변성 가운데서 자세를 가다듬는 제3의 길을 제시했다(梶村秀樹, 1993: 161-162). 미야지마 히로시 역시 ‘문명주의’도 ‘민족주의’도 아닌 ‘주변적 입장의 고지(固持)’라는 ‘제3의 입장’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宮嶋博史, 2012: 21).

『태풍』(1973)은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휘말린 조선 출신 군인을 모티프로 아시아주의를 형상화한 특이한 작품이다. 주인공 오토메나크는 ‘자타

가 공인하는 아시아주의자'였다. 1960년대 최인훈은 '한국-세계'라는 틀을 통해 세계를 인식했지만, 1970년대에는 '한국-동아시아-세계'라는 틀을 통해 세계를 인식했다(41쪽). 저자는 최인훈이 아시아라는 보조선을 그음으로써 비로소 주인과 노예의 구도를 벗어날 '해답'을 얻었다고 평가한다(37쪽).

배주환은 책머리에 부친 “『최인훈의 아시아』를 펼치면서”에서 “1930년대 남성 지식인인 최인훈의 아시아, 두만강변 마을에서 시작하여 일본을 거쳐 동남아시아에 닿았던 그의 아시아가 멈춘 지점, 곧 중국이라는 문턱의 의미 역시 다시 한번 새깁니다.”라고 말했다(12쪽). 다케우치 요시미는 유럽적 원리와는 다른 세계 인식과 주체 구성의 원리를 아시아적 원리라고 명명했는데(353쪽), 아시아는 곧 중국이었다. 배주환이 문제시한 최인훈의 중국 없는 아시아와 다르다.

배주환은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의 개혁개방, 6·15 남북공동선언, 한일월드컵에 힘입어 동아시아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시도하던 때”였다고 기억했다(10쪽). 저자와 배주환은 2000년대 초반 대학 시절을 보낸 ‘동아시아 세대’였다. 1990년대 탈냉전과 더불어 동아시아 담론이 유행했다. 한중일 사이에 폭발적인 인적 교류가 시작되었고 동아시아 공동체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어디에 있는가. 2000년 전후 동아시아 담론이 본 것은 어쩌면 일본의 눈에 비친 중국이었다. 1930년대 동아협동체와 동아신질서 이후 두 번째 찾아온 환상의 동아시아였고 우리는 여전히 중국을 몰랐다. 전쟁과 식민 지배 책임도 제기되었지만, 더 큰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탈냉전과 탈식민의 흥분에 가려졌다. 저자는 1960년대 후식민지 주체 독고준의 문제들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과 그 질문의 형식이 같다고 지적했다(185쪽). 그렇다면 『태풍』(1973)에 등장하는 오토메나크의 아시아주의는 독고준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과 얼마나 다를까.

김윤식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한국문학이 비로소 아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고 보았다(38쪽).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전까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최인훈은 필리핀과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영역을 넘어서는 아시아를 직접 경험했다. 베트남 파병은 한일 경제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양대 축이었다. 가지무라는 베트남 파병이 박정희 정권의 ‘주체적 선택’이며 그 안에는 ‘조국 근대화’와 ‘국위 선양’이라고 하는 ‘사

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吉永長生(梶村秀樹), 1993: 289-290). 1970년대 최인훈에게 아시아는 무엇이었을까.

마쓰우라 마사다카는 2000년대 동아시아 공동체 프로젝트에 드리워진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그림자를 지적한다. 그리고 눈앞의 정치경제 문제에 대처하려는 '기능주의'와 역사책임을 포함해 제국주의 비판을 버리지 않는 '역사주의'의 대립을 보고, 이는 동남아시아 연구자와 중국, 한국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대립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松浦正孝, 2010: 27). 최인훈의 중국 없는 아시아는, 동아신질서에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즉 동북아시아의 식민주의와 아시아주의가 영킨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동남아시아 침략으로 내달은 과거 일본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홍종욱, 2023).

#### IV. 전통을 바탕으로 한 주체와 연대라는 이름의 식민주의

1960년대 초반 한일 협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1950년대 '유령'과 같이 존재하였던 식민지라는 문제가 다시금 한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했다(175쪽). 다만 식민지를 원료의 공급지나 상품의 시장으로 이해하고, 힘이 없어 당했으니 실력양성이건 무장투쟁이건 힘을 기르자고 주장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식민지가 무엇인지 반쯤밖에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1950년대 한국 사회가 식민지를 자연화하거나 망각했다는 저자의 지적과 통한다(173쪽). 실은 남북한의 공식적인 역사 인식은 오늘날도 여기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했다.

식민지라는 조건이 여전한 1960년대 냉전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최인훈은 '후식민지' 한국을 발견한다(176쪽). 최인훈은 식민지를 전통의 상실, 주체의 부재로 받아들였고, 탈식민의 방향은 자연스레 전통을 바탕으로 한 주체 형성에 맞춰졌다. 최인훈에게 선진국은 "국민사(史)인 것이 바로 인간사(史)"인 나라, 곧 자신의 경험이 지구적으로 보편성을 가지는 나라였다(36쪽). 최인훈은 3·1운동과 4·19로부터 서구의 혁명과 "동일한 형태의 생명의 경험"을 추출했다(277쪽). 1970년을 전후해서는 새로운 관계에 근거한 '삶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했던 콤플렉스를 넘어선다(139쪽).

『주석의 소리』에서 임시정부 주석은 전근대 시기 중국, 한국, 일본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과 공존의 원리에 주목한다(269쪽). 최인훈은 서세동점 이전의 동양은 ‘야만’이 아니라 문명한 ‘농업’ 사회이고,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이 이루었던 문명한 균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70~271쪽).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주변부의 근대 문학이었던 한국 근대 문학의 실패한 역사를 전통으로 형성하여 서구와 한국의 유비 관계를 탈구축하고 보편성을 재인식하고자 했다(189~190쪽).

1970년대 초반에 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최인훈은 일상과 민중에 관심을 둔다. 구보씨는 서울의 주변부를 자신의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고 지역의 민중과 일상을 공유했다. 1960년대 지식인을 주체로 한 중립화론에 관심을 기울였던 최인훈은 1970년대 초반 민중의 일상과 공공의 토론에 근거한 통일론으로 그 관심을 이동했다(142쪽). 1973년 최인훈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 공명하여 한동안 절판되었던 『광장』을 민음사에서 재간행하면서, 한자 개념어와 용어를 고유어로 수정한다(140쪽).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을 그 자체로서 ‘전통’으로 구성하고 그로부터 ‘보편성’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은 ‘식민지’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회색인』은 “식민지 없는 민주주의는 크나큰 모험이다.”라고 밝힌다(36쪽). 최인훈이 『주석의 소리』에서 내비쳤듯 한국의 희망은 연대와 공존의 원리로서 아시아가 아니라 스스로의 근면을 식민지 삼는 것, 다시 말해 가혹한 자기 착취였다(유찬근, 2025). 그리고 최인훈은 베트남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아시아주의를 형상화한다. 최인훈은 제국의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공존과 연대의 착한 제국을 꿈꾼 건 아닐까.

최인훈은 탈냉전, 탈식민을 꿈꾸었지만, 점차 후냉전, 후식민 상황을 직시하고 새로운 주체를 탐구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최인훈은 중립과 독립을 넘어 자기 전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형성과 연대를 지향했고, 저자는 이를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설명했다. 다만 서구가 아닌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넘어서는 사회를 꿈꾸면서, 침략과 연대가 복잡하게 얽힌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일본 아시아주의 역사이기도 했다.

반재영은 『태풍』 이후 최인훈의 절필 이유를 물었다. 어쩌면 1960~70년대 최

인훈 사상의 도달점인 아시아주의, 그 비극의 지적 회로에서 절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냉전의 속박이 풀리고 민주화가 진전된 새로운 상황에서 『화두』가 논한 사회적 연대와 인류의 이상은 1960~70년대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248쪽).

투고일: 2026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2026년 4월 9일

## 참고문헌

- 김도민. 2025. “‘역사화’의 방법으로 다시 읽는 최인훈: [서평] 장문석(2025),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 틈새의시간, 448쪽.” 『인문논총』 82(3): 523-536.
- 반재영. 2025. “연결과 만남의 관점에서 읽은 최인훈: 장문석 저 『최인훈의 아시아』(틈새의 시간, 2025)에 부치는 서평.” 『상허학보』 75: 527-566.
- 선민서. 2025. “주변부의 세계사라는 최인훈의 문화적 상상과 아시아(들)의 가능성: 장문석의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2025)에 대한 서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3): 645-663.
- 유찬근. 2025. “유찬근의 역사책 달리기: 밀친 없는 근대에서 아시아의 연대와 공존을 찾다, 식민지 지적 전통 앞에서 괴로워한 최인훈의 제3의 길.” 『한겨레 21』 1562.
- 홍종욱. 2019. “3·1운동과 비식민화.”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3·1운동 100년 3: 권력과 정치』. 서울: 휴머니스트.
- 홍종욱. 2023. “대동아공영권 경험과 식민주의 망각.” 윤대영 엮음. 『아시아의 20세기 지역변동과 지역상상』. 과천: 진인진.
- 大橋良介. 2001. 『京都学派と日本海軍: 新史料大島メモをめぐって』. 京都: PHP研究所.
- 梶村秀樹. 1993. “‘야ぶにらみ’의 周辺文明論”(1985). 『梶村秀樹著作集 第2卷 朝鮮史の方法』. 東京: 明石書店.
- 梶村秀樹(吉永長生), 1993. “ベトナム派兵の傷痕”(1974). 『梶村秀樹著作集 第5卷 現代朝鮮へ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 松浦正孝. 2010. 『大東亜戦争はなぜ起きたのか: 汎アジア主義の政治経済史』.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宮嶋博史. 2012. “際」を自覚した者の苦悩: 朝鮮思想史の再検討.” 『言語文化』(同志社大学言語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 15-1: 1-18.